

디젤자동차, 연비효율 타고 땡땡

2013년 국내 판매량의 10% 차지 ... GM·르노 신차 출시 잇달아

2013년 국내에서 판매된 자동차 10대 가운데 3대가 디젤자동차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기업들은 디젤자동차를 앞세운 외국기업의 공세에 맞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디젤자동차를 투입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어 디젤자동차 시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국내시장에서 판매된 자동차 153만399대 가운데 디젤자동차는 45만9480대로 30.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이 36만2295대, 외국기업이 9만7183대를 판매했다.

외국기업은 2013년 15만6479대를 팔아 국내 자동차 판매량의 10.0%를 차지했으나 수입차 시장에서 유독 디젤자동차가 인기를 끌며 디젤자동차만 따로 보면 수입차 점유율이 21.2%로 2배를 넘었다.

국내기업 중에서는 쌍용자동차의 디젤 비중이 95.0%에 달했다. 쌍용자동차는 유일한 승용차 모델인 체어맨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SUV) 또는 다목적자동차(MPV)로 디젤 엔진을 탑재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2014년 중형 승용차 SM5에도 디젤 엔진을 탑재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GM도 2014년 상반기에 말리부 디젤 라인업을 출시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디젤 쏘나타와 그랜저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관계자는 “디젤자동차는 매연·진동·소음이 심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로부터 외면받았지만, 상대적으로 성능이 좋은 유럽산 디젤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인식이 개선됐고 연비효율성도 뛰어나 시장이 확장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2015년 저탄소 자동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에 부담금을 물리고,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1/22>